

# 오미크론 변이 'BA.5' 사실상 우세종

### 면역회피 강하고 전파 빨라 광주·전남 4000명대 신규 확진 전국, 석달만에 10만명대 근접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이 강한 면역회피력과 감염속도까지 빠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5' 우세종 지역으로 들어섰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3주(17~23일) 국내감염 BA.5 검출률은 49.1%로 전주(47.2%)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는 지난 5월 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사례가 확인됐으며 국내감염 검출률은 6월 5주 24.1%, 7월 1주 23.7%에서 7월 2주 47.2%로 급등했다.

해외유입의 BA.5 검출률은 73.3%로 전주(62.9%)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다.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모두 합친 전체 BA.5 검출률은 56.3%다. 사실상 우세종(국내 감염 검출률 50% 이상)이 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광주·전남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미 BA.5 우세종 지역

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A.5는 현재 다른 세부 계통보다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세종화, 우점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델타 변이는 지난해 4월 29일 국내 첫 감염이 확인된 후 14주 만인 지난해 7월 4주 차에 우세종(50.3%)이 됐고, 오미크론(BA.1)은 지난해 12월 1일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8주 만인 올해 1월 3주(50.3%)에 우세화했다.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1월 말 국내 유입돼 지난 3월 4주(56.3%)에 우세종이 됐다. BA.2의 7월 3주 국내 감염 검출률은 8.0%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외에 또다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2.3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11.8%, BA.4는 2.5%, BA.2.12.1은 1.9%다.

7월 3주에 국내에서 추가 검출된 BA.5는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국내감염이 425건, 해외유입이 272건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BA.4는 60건(국내 26건, 해외 34건), BA.2.12.1.57건(국내 27건, 해외 30건), '켄타우

로스'로도 불리는 BA.2.75는 3건(국내 2건, 해외 1건)이 확인됐다.

사실상 'BA.5' 우세종 지역으로 진입한 광주·전남지역은 석 달여 만에 각각 2000명이 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는 231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이는 지난 4월 26일(2071명) 이후 석 달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전남지역도 이날 2547명이 확진돼 5월 9일(2303명) 이후 88일 만에 20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에선 사망자가 1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도 9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성 상무대에서 2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장성의 여러 군부대에서 최근 200명 이상이 집단 확진됐다. 이날 담양의 한 군부대에서도 1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됐다.

전국적으로 이날 석달만에 10만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9327명이나 나왔으며, 이는 지난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7일만의 최다치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10년 전보다 3.3년 늘어

### OECD 80.5세...자살사망률 1위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연간 14.7번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년 더 길며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보건의료 인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년 길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84.7세)과는 1.2년의 차이를 보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3년 증가한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09년 35.3명에서 10년새 약 10명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평균(11.1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건강 위험 요인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10년

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과체중·비만 인구는 늘었다. 2020년 국내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5.9%로 OECD 평균(16.0%)과 비슷했다. 흡연율은 2010년 22.9%에서 2015년 17.3%, 2020년 15.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美 애리조나 “아름다운 한복은 한국 전통”

### ‘한복의 날’ 선포...미국 50개 주 중 뉴저지 이어 두번째

그랜드캐니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州)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州)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뉴저지에 이어 한복의 날을 선포한 두 번째 주가 됐다.

더글러스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선언문에는 한복이 2000년 넘게 계속된 한국의 전통 문화, 사회, 역사의 일부라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한복을 ‘한국인의 전통의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듀시 주지사는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애리조나주도 이날을 한복의 날로

선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애리조나주가 한복의 날을 기념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한복의 날 제정 운동을 시작한 AAYC와 애리조나주 한인 사회의 협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애리조나주 내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 메사시는 지난 5월 주 정부에 앞서 한복의 날을 시 차원에서 기념하기로 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복(Hanbok)이 고유명사로 자리 잡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한복의 날 법안 제정을 미국 전역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AYC는 지난해부터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복의 날 제정 운동을 시작했고, 구급에 항의해 ‘김치의 기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한 단체다.

/연합뉴스

## 한미정상, ‘추모의 벽’ 준공식서 동시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에서 한미동맹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표한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독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26일 주미한국대사관과 보존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방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행사에서 대독한다. 지난 21일 코

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 관련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백악관 규정상 5일 격리 뒤 음성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7일 행사 참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은 바이든 대통령 참석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홍콩대 “국가보안법 강좌 이수해야 졸업”

홍콩 교육 당국과 대학이 국가보안법 교육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홍콩대는 지난 25일 전체 학생에게 보내 이메일을 통해 오는 9월 시작하는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에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6일 전했다.

홍콩대를 포함한 8개 공립대는 모두 국가보안법 강좌를 개설했지만 9월 새 학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명목도 보도했다.

홍콩 교육부는 전 학년에 걸쳐 국가보안법 교육을 강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사에서 한 연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교육부 장관은 24일 홍콩 북패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국가 안보관을 고양하기 위한 그림책 ‘우리나라, 우리 안전’을 배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읽기 자료 개발을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이 장관은 또한 25일 입법회에서 “학생들은 시 주석이 최근 홍콩에서 한 연설의 중요한 개념을 익혀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서의 목표와 꿈이 국가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장, 교사들과 시 주석의 연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농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원도근 원도읍 죽성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

**분할합병공고**  
아미스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나레이엔씨(“을”)는 상기 2022년 7월 26일 각각의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소방설비관리대행업,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소방설비공사업 중 소방설비공사업 만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무)를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갑” 아미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673번길 8 대표이사 김 우 일

“을” 주식회사 나레이엔씨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673번길 8 대표이사 오 성 일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공고)  
주식회사 해민전력(이하 “갑”)과 주식회사 형철전력(이하 “을”)은 상기 2022년 07월 26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2년 7월 27일

“갑” 주식회사 해민전력  
(법인등록번호: 200111-0514103)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길 26-4 대표이사 하 원 형

“을” 주식회사 형철전력  
(법인등록번호: 200111-0237309)  
전라남도 장성군 장동읍 읍성로 163-1 대표이사 윤 중 현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남규(66030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사직안길 9-9 (사동)

피상속인 망 박남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2022-단3704호로 신청하여 2022년 7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27일

- 상속인: 박주현(202029-XXXXXX)

전주시 덕진구 숲내로 120. 403동 903호 (송전동1가, 현대4차아파트)

- 신고기간: 2022. 7. 27 ~ 2022. 10. 6.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주현의 주소

---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1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동 중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오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신 하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지 평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남 은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공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